

說教學 講議方法에 對한 研究

李 晶 熙

(실천신학·부교수)

目 次

서 論

I. 說教의 神學

1. 說教와 聖書의 關係

2. 說教의 本質과 目的

(1) 說教의 本質

(2) 說教의 目的

3. 說教者의 人格과 準備

(1) 說教者의 人格

(2) 說教의 準備

II. 韓國教會 說教의 狀態 및 問題點

1. 說教의 神學的인 面에서

(1) 說教의 內容과 聖書

(2) 說教의 目的

(3) 說教者의 人格

2. 說教의 方法的인 面에서

(1) 說教의 準備

(2) 說教의 構成

(3) 說教의 傳達

(4) 說教의 評價

III. 說教學 教材에 對한 概觀

IV. 說教學 講議方法에 對한 提案

1. 講議內容 面에서

(1) 說教者의 準備

(2) 說教의 準備方法

(3) 說教의 傳達

(4) 說教의 練習과 評價

2. 講議方法面에서

(1) 講議時間

(2) 講議計劃과 方法

結 論

參考文獻 目錄

序 論

說教은 基督教 理論神學의 열매로서 行해지는 說教者의 중요한 課業이다. 또한 說教은 하나님께 召命 받은 牧會者에 의해서 現時代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聖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宣布하는 教會의 貴重한 課業이기도 하다. 說教은 사람들의 靈魂을 救援하는 神的인 일이며, 사람들의 生活와 人格을 變化시키는데 至大한 影響을 끼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說教課業의 重大性에 비추어 볼 때 韓國教會의 說教은 아직 여러가지 面에서 未及한 點이 많은 것이 事實이다. 이것은 韓國教會가 說教의 神學이나 잘 정리된 說教의 方法論이 缺如된 狀態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論文의 目的은 韓國教會 狀況에 알맞는 說教學 講議方法에 대한 研究를 해서 說教學을 效果的으로 講議하고자 함에 있다. 앞으로 韓國의 說教壇(Pulpit)을 차지하고 說教할 神學徒들에게 설교학을 效果的으로 강의하는 일은, 특히 制限된 강의시간에 說教의 神學이나 方法論을 적절히 講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時急히 요청되는 일로 보고 研究에 臨하고자 한다.

研究의 範圍는 우선 說教의 神學을 다루고, 다음에 한국교회 설교의 狀態와 問題點을 論술하고, 가장 좋은 10권의 說教學 教材를 概觀하고, 이에 비추어 說教學 講議 方法에 대해서 提案하고자 한다.

I. 說教의 神學

說教者는 自己가 가지고 있는 神學에 의해서 說教하는 것이다. 韓國教會는 說教의 神學이 바르게 定立될 必要에 처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說教와 聖書의 關係, 說教의 本質과 目的, 說教者의 人格과 準備로 나누어 論술하고자 한다.

1. 說教와 聖書의 關係

說教者가 宣布하는 메시지는 자기가 創案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聖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說教

者は 설교의 근거로써 聖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브로더스(John A. Broadus)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여야만 한다고 말했다.¹

설교에서 성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² (1) 설교학적으로 충실한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2) 성서는 설교자에게 복음선포에 적당한 영적인 材料를 주기 때문이다. (3) 설교자를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게 한다. (4) 설교의 다양성을 더해 준다. (5) 설교자가 좋은 주제를 부담없이 취급할 수 있게 한다. (6) 설교자가 권위를 가지게 된다.

基督教 歷史를 살펴 보면 언제까지 基督教가 발달된 때에는 위대한 설교가 그 길잡이가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³ 그러나 사실상 설교의 성패는 설교자가 얼마나 聖書에 충실하냐에 달려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正確하다고 보겠다. “정직하게 聖書와 關聯될 수 없는 설교는 전혀 基督教의 설교라고 주장할 수 없다.”⁴ 설교는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基督教人들의 生活에 適用하게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위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救贖의 行爲의 唯一性은 聖書에 그 唯一性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⁵ 하나님의 獨特한 계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독특한 설교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 안에서 教會를 하나의 獨特한 기관으로 만들어 주는 것

¹ John A.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ed. rev., Vernon L. Stanfield (Sanfrancisco : Harper & Row, 1979), p. 18.

² Ibid., pp. 19-22.

³ H. C. 브라운 Jr.; H. G. 크리나드; J. J. 노스커트, 「說教方法論」, 이정희역권 (서울: 요단출판사, 1983), p. 46.

⁴ 제이 다니엘 바우만, 「현대설교학 입문」, 정장복역(서울: 양서각, 1983), p. 129.

⁵ Donald G. Miller, *The Way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57), p. 39.

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는 것이다.⁶ 밀러(Donald G. Miller)는 “예수의 전생애는 전 구약성서에 대한 하나의 웅대한 진열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신약성서의 기자들은 구약성서의 完成으로 예수를 전파했다고 언급한다.⁷ 설교자의 강단은 성서로부터 설교하도록 우리에게 許諾된 장소이다. 결코 자기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의 첫 기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메시지를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⁸ 여호와의 사자인 선지자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正確하게 전달하는 자이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기 위한 것”(새번역 골1:25)이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에베소 장노들에게 바울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행 20:27) 말했다.

스탯트(John R. W. Stott)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탁하시고 지금 성경에 保存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맡은 청지기이다.”⁹ 청지기는 자기 것을 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창고에서 내어다가 먹이는 것처럼 설교자는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설교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자격이 없다.”¹⁰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고전 15:3)라고 말했다. 설교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없이

⁶ 바우만, p. 126.

⁷ Donald G. Miller, *Fire In Thy Mouth*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54), pp. 43-49.

⁸ 예레미야 1:7; 15:19; 23:16; 이사야 1:20; 스가랴 7:12; 아모스 3:8; 7:16을 참조하다.

⁹ 존 스탯트, 「설교자像」, 문창수역(서울: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p. 15.

¹⁰ 월치만 니, 「말씀의 사역」, 권혁봉역(서울:생명의말씀사, 1974), p. 91.

는 설교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악트마이어(Elizabeth Achtemeier)는 미국 개신교의 주요동향이 성서적 근거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이제 성서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도 예상되는 개신교의 집회 행위를 계속할 수가 있다… 설교자의 소신이나 윤리적 견해가 성서 본문의 말씀과 대체될 수도 있다.”¹¹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이라 만일 교회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를 성서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를 우리에게 完全히 제시해 줄 다른 매개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¹²

이상의 언급을 종합해 볼 때 성서는 설교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자가 성서를 떠나서 설교한다는 것은 마치 바탕이 없이 천을 짜려는 것과 같이 우매한 일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2. 說教의 本質과 目的

說教의 神學을 研究하기 위해서는 說教의 本質에 대한 이해와 그 目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다.

(1) 說教의 本質

신약성서에서는 說教란 무엇이나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서는 여러학자들이 說教의 本質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려고 努力한 것을 살펴 보므로써 說教의 本質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도하려고 한다.

說教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부룩스(Phillips Brooks)에 의해서 내려진 정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說教란 사람에게 의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¹¹ E. 악트마이어, 「舊約聖書와 福音宣布」, 張一善역 (서울:大韓基督教出版社, 1981), p. 9.

¹² Ibid., p. 11.

전달하는 것이다.”¹³

패티슨(T. Harwood Pattison)은 부룩스의 概念을 인용해서 “說教란 說得시킬 目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¹⁴ 라고 정의했다.

블랙우드(A. W. Blackwood)는 說教란 “인간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어떤 選擇된 人格에 의하여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 혹은 인격을 통하여 이루어진 신적 진리를 의미한다.”¹⁵

說教의 本質에 대한 현재의 강조는 성서신학 연구가 증대하는 풍조 속에서 재생된 신학적인 概念에 의해서 說教를 하나의 실존적인 만남, 구원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論한다. 이런 이들은 칼 발트(Karl Barth), 파머(H. H. Farmer), 브루너(Emil Brunner), 존스(I. T. Jones), 캐머러(Richard Cammerer), 마운스(Robert Mounce), 그리고 밀러(Donald Miller) 등이다.¹⁶

생스터(William E. Sanster)는 說教란 “입으로 말하는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수속된 말씀의 드러냄”이라고 정의한다.¹⁷

곽안련은 존슨(Herrick Johnson)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計劃과 目的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있는 종교적 강화이다.”¹⁸ 라고 했다.

브라운(H. C. Brown Jr.)은 “說教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¹³ Phillips Brooks, *Lectures on Pr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69), p. 5.

¹⁴ T. Harwood Pattison, *The Making of the Sermon* (Valley Forge : Judson Press, 1941), p. 3.

¹⁵ A. W. 블랙우드, 「설교준비법」, 양승달역(부산 : 성암사, 1976), p. 11.

¹⁶ 브라운, 「說教方法論」, p. 20.

¹⁷ William E. Sangster, *The Craft of Sermon Construction*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51), 34.

¹⁸ 관악련, 「說教學」(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54), p. 16.

부름을 받은 사람이 基督教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校果的으로 전달하는 것이다.”¹⁹라 정의했다.

바우만(J. Daniel Baumann)은 “說教는 행위의 變化를 일으키려는 명백한 目標를 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서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설교를 정의한다.²⁰

스탠필드(Vernon L. Stanfield)는 “說教는 人間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選擇된 인격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說教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택된 설교자, 그리고 인간의 요구이다.²¹

鄭長福教授는 “說教란 택함받은 說教者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 진리를 회중들의 삶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하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²²라고 정의한다.

이상 제학자들의 說教의 정의에 입각해서 說教의 本質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說教를 정의할 수 있겠다. 說教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必要에 응하기 위해서 效果的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2) 說教의 目的

說教의 目的은 說教해서 얻기 원하는 결과를 말한다. 說教의 目的을 미리 분명히 알고 說教를 準備해서 전달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必須的인 일이다. 校果的인 說教를 하기 위한 첫 조건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²³

說教의 目的은 크게는 세 가지 次元으로 區分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²⁴ 첫

¹⁹ 브라운, 「說教方法論」, pp. 22-23.

²⁰ 바우만, p. 15.

²¹ Broadus, p. 3.

²² 鄭長福, “說教의 재발견”, 基督教思想, 1981. 2. pp. 141-142.

²³ Broadus, p. 50.

²⁴ 브라운, 「說教方法論」, pp. 29-31.

제는 說教의 總括的인 목적이다. 설교자가 일생동안 설교자로서 추구해야 할 목적은 곧 사람들에게 生命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0:10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生命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설교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둘째 次元은 주요한 목적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必要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²⁵ (1)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으려는 必要를 위한 복음전도 목적, (2)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必要한 교리적 목적, (3) 기독교 신자들이 주님과 교제를 위한 必要에서 경건의 목적, (4) 기독교 신자들이 效果的으로 奉仕하기 위한 必要에서 봉헌의 목적, (5) 기독교 신자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必要에서 원조적인 목적, (6) 기독교 신자들로서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必要에서 倫理的인 目的으로 區分할 수 있다.

셋째 次元은 特殊한 목적으로써 각각 주요한 목적의 한 局面이 되는 한 說教의 結果로써 얻기 원하는 目的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表現한 目的이다.²⁶ 이때에 설교자는 사람들의 必要에 따라서 주요한 目的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의 目的과 일치하게 그 說教의 目的을 定해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로마서 5:8을 본문으로, 주요한 目的을 복음전도적 目的으로 定했다면, 특수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人類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에 나타남을 알게 해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이다.

바우만(J. Daniel Baumann)은 현대설교의 네 가지 目的을 케리그마적 즉 복음선포의 설교, 敎訓的 或은 교리적 설교, 個人 치유적 설교, 사회치료를 위한 예언적 설교로 區分해서 설명한다.²⁷ 설교자가 全人에게 必要한 하나

²⁵ Ibid., p. 30.

²⁶ Ibid., p. 31.

²⁷ 바우만, p. 288.

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면 복음의 個人的인 면만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복음의 社會的인면도 강조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행위의 基礎를 무시하므로써 흔히 과오를 범해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 구원이 社會的 行動의 基礎임을 무시한 것이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人間의 全體的인 必要에 대한 責任을 무시함으로써 흔히 과오를 범해왔다. 그들은 때때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必要한 모든일을 했다는 인상을 주어진 것이다.²⁸

설교자는 사회치유적 예언설교를 위해서 社會問題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논하는 방법 以外에 行動의 原理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하고 說教해야 하겠다.

3. 說教者의 人格과 準備

諸學者들의 說教의 定義에서 발견되는 통일된 事項은 眞理, 사람, 傳達이다. 前項에서 聖書에 나타난 하나님의 眞理를 설교해야 함을 이미 논한 바 있다. 說教行爲에 있어서 그 眞理를 傳達하는 사람의 人格과 準備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1) 說教者의 人格

說教者는 메시지의 통로이다. 설교자의 기능은 高貴하기 때문에 설교자의 마음, 精神과 肉體 그리고 영혼의 訓練은 必須的인 일이 되는 것이다.²⁹ 여기서 몇 가지로 說教者의 人格을 설명하고자 한다.

²⁸ Ibid., p. 308.

²⁹ Broadus, p. 13.

① 說教者는 하나님의 召命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신다.³⁰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기본적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돕는 일꾼 사람을 선출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直接的인 體驗이 있어야 한다. 요한1서 1:2, 4:14에 보면 요한은 “보고 증거” 한다고 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산 체험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설교자는 弟子로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聖書와 부딪히고 성령과 만남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자이어야 한다.³¹

설교자는 또한 使徒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후 5:20). “목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파송된 진실한 使臣으로서 하나님의 召命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으면... 목사는 영혼들을 건지며 교회를 건축하며 모든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³²

② 說教者는 겸손해야 한다. 說教者가 가지는 직업적 危險의 하나는 자존심이다.³³ 說教者는 높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연고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영의 유혹이 찾아들기 쉬운 것이다. 설교자의 겸손의 한 完全한 본보기는 요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했다(참조: 요 1, 7, 8, 15, 19).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25-30)라고 말했다. 說教者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가리키는 “표지판”의 위

³⁰ 參照: 출애굽기 3:10; 사무엘상 3:10; 아모스 3:8, 7:14-15; 이사야 6:8; 마태복음 4:18-19; 사도행전 10:42; 로마서 1:1, 10:14; 디모데후서 4:2; 디도서 1:3.

³¹ 바우만, p. 43.

³² W. A. 크리스웰, 「크리스웰의 목회자 지침서」, 김경신역(서울: 정음출판사, 1984), pp. 479-480.

³³ 바우만, p. 54.

치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³⁴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의 고상한 말과 인간의 지혜를 모두 부정했던 것이다. 그들의 영원한 福과 비교할 때 바울 자신의 명성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고전 2:1 이하).

③ 說敎者는 사랑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 스타트(John Stott)는 바람직한 설교자像은 아버지像이라고 하였다.³⁵ 說敎者가 설교를 準備할 때나, 설교를 傳達할 때 그리고 설교후에 사랑스러운 가족관계를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설교는 혼탁한 소음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아버지像은 說敎者가 이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接觸하고 그들을 알고 설교하므로 잘 표현되는 것이다.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한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권고하듯, 설교자는 모범을 보이면서 설교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完全한자로 세우려”(골 1:28)고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살전 2:7) 하였다고 했다.

(2) 說敎者의 準備

說敎者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傳達되기 때문에 설교자의 건강과 지적이며 영적인 準備는 필수적인 일이다.

① 說敎者는 건강해야 한다. 좋은 건강은 좋은 성격과 낙관적인 인생관, 分明한 思考, 육체적인 활동과 密接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說敎者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食事を 정상적으로 하고 規則的인 運動을 해야 하며 일주일에 하루를 휴일로 정해 놓아야 한다.³⁶ 크리스웰은 “운동할 時間이 없으면 다른 일할 시간도 없어야 한다”고 말함으로 신체운동의 중요성을 강

³⁴ 스타트, 「설교자 像」, p. 96.

³⁵ Ibid., pp. 99-125.

³⁶ Broadus, p. 16.

조했다.³⁷

설교자는 또한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설교자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롬 12: 3)고 말했다. 사실 그대로의 자신을 생각하고 자만으로나 자기 부정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³⁸ 설교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平安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건전한 신앙인으로서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使者로서 重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② 說教者는 계속해서 研究해야 한다. 說教者의 說教를 위한 연구계획은 성서의 연구와 일반적인 研究로 區分할 수 있다. 먼저 聖書研究를 위해서는 신구약을 교대로 설교하도록 연구하면 좋겠다. 우선 성서의 각 冊을 연구해서 강해할 수 있겠다. 아니면 성서의 큰 주제별로 나누어 연구해서 說教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研究는 자기가 연구하기 원하는 전공과목과 고전, 역사, 과학, 잡지, 정기간행물, 신문 등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다. 說教者는 研究를 위한 時間計劃을 規則的으로 정해서 說教할 資料를 豊富하게 수집해야 할 것이다.³⁹ 크리스웰(W. A. Criswell)은 자기의 격리된 서재에서 소중한 아침시간을 活用해서 그의 놀라운 집중과 準備의 한평생을 설교를 위한 研究에 집중했다고 한다.⁴⁰

③ 說教者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남 모르게 경험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공중 앞에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을 잘도 알아 본다는 말이다”⁴¹ 설교자 자신이 하

³⁷ 크리스웰, p. 491.

³⁸ 바우만, pp. 50-51.

³⁹ 브라운, 「설교방법론」, pp. 95-96.

⁴⁰ 크리스웰, p. 82.

⁴¹ 바우만, p. 46.

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풍성하게 젖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스펀전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선일 때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⁴²

說教者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한다. 聖靈은 기독교인들에게 회개, 믿음, 성숙의 선물을 주신다. 聖靈은 설교자에게 성경본문을 선택하고 研究하며 자료를 準備하도록 인도하시며 설교를 전달할 能力을 주신다. 聖靈께서만 사람들을 變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⁴³ 그러므로 설교자는 매 순간 聖靈께 의지하고 順從하여서 聖靈의 能力을 힘입고 설교하도록 해야 한다.

II. 韓國教會 說教의 狀態 및 問題點

韓國教會 說教의 狀態 및 問題點을 把握하기 위해서 필자는 90명의 신학생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30개의 설문을 조사했고 5명의 설교학 교수가 포함된 21명의 유능한 설교자들에게 23개 문항을 가지고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分析한 결과는 韓國教會 說教의 狀態 및 問題點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또한 效果의인 설교학 강의방법에 대한 제안을 얻을 수 있었다. 필자는 한국교회의 설교의 狀態와 問題點을 첫째, 설교의 神學的인 면에서, 둘째, 설교의 方法的인 면에서 논술하고자 한다.

1. 說教의 神學的인 面에서

說教의 神學에서의 問題點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 생각할 問題는 韓國教會는 說教神學의 定立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⁴⁴ 說教를 效

⁴² 찰스 스펀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제 1 권, 이종태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p. 14.

⁴³ Broadus, p. 16.

⁴⁴ 鄭聖久編, 「說教學 概論」(서울: 세종문화사, 1983), p. 32.

결과와 方法에만 치우친 나머지 쟁잡는 것이 매라는 식의 신학적인 자기 정리가 없는 설교가 되어지고 있다. 교회성장의 물결을 타고 많은 교역자들이 철저한 신학교육을 못받고 설교자로 일하는 연고로 神學教育의 부족을 비정상적인 설교로 나타내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方法으로 구원해 보겠다는 運動들, 즉 경험주의나 신비주의적인 方法을 통해서 설교의 본래의 精神을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⁴⁵

朴根遠교수는 “오늘의 說教狀況에서 다른 하나 중요한 문제점은 비신학적 설교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⁶ 라고 언급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은 율법적인 설교와 심리적인 설교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입장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설교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問題는 說教의 內容을 성서에 중심하느냐? 아니면 성서의 범위를 넘어서 내용을 취하느냐? 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오는 문제는 설교자의 神學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說教의 內容과 聖書

필자가 신문을 통해서 조사한 結果는 比較的 양호한 편이었다.

설문 1. 설교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위 질문에 贊成한 의견이 97.8%의 지지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 2.2%는 대학부 학생들에게서 나온 결과로 아직 설교에 대한 이해부족의 결과인 듯하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이 實際로 說教를 할 때 성서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말이나 時代狀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결과는 아주 좋은 所望을 비추어 주는 결과로 본다.

설문 6. 설교할 사상(Idea)을 성경본문에 연관시키지 않은 설교는 성서

⁴⁵ Ibid.

⁴⁶ 朴根遠, 「오늘의 說教論」(서울: 大韓基督敎出版社, 1980), pp. 16-17.

적인 설교라고 보기 어렵다.

응답구분	적극찬성	찬 성	그저그렇다	반 대	적극반대	계	수
구성비	24.4	44.4	18.9	8.9	3.3	99.9	90

위 질문은 설교와 성경의 연관성을 묻은 결과이다. 찬성 비율은 68.8%이고 반대 비율은 12.2%이며 찬반미결이 18.9%이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현역목회자들은 100% 찬성비율인데 비해서 학부 및 신학대학원생들은 찬반미결에 18.9%를 나타낸 것은 아직도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 부족의 현상으로 보겠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볼 때 30%이상의 학생들이, 성서에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료에서 설교하는, 현재 교회설교의 狀態를 드러내는 면으로 볼 수 있어서 우려되는 結果로 주목하고 싶다.

설문17. 설교는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중심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받아 들일 때 위 설문에 대해서 찬성한 비율이 90%이고 찬반미결이 10%로 나타났다. 찬반미결이 10%임은 아직 설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는 결과로 보고 싶다.

설문18. 설교는 교인들의 必要에 따라 교리적으로 건전치 못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위 설문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비율이 87.8%이고 찬성이 4.4%이고 찬반미결이 7.8%이다.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교인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설교라 보는데, 두드러지는 것이 기복주의적인 복음선포라 본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정황이 그동안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짓밟히는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백성을 위로하고 감싸주며 내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인들이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나 그리스도인의 生活과 반성과 責任性에 대한 教訓的인 或은 책망적인 설교를 감당하지 못하는 유아적인 信仰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초보적인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할 때 한국교회는 재래종교와 얼섞여서 기복신앙의 形態로만 커 나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설교도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신앙형태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이다.⁴⁷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인의 기호에 응답하는 설교를 찬성한 위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한국교회 설교의 한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신중히 취급해야 하겠다고 느낀다.

설문23. 貴下는 다음 설교의 種類中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설교의 種類에 대한 응답결과는 설교의 주요한 부분(대지)들이 본문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제목에서나 다른 곳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때 설교의 내용과 성서의 항에 관계가 된다. 응답결과는 본문설교가 54.4%, 주해설교가 24.4%이고, 제목설교는 14.4%, 기타와 무응답이 6.8%이었다. 이것은 설교의 주내용을 성경본문에서 이끌어 내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을 78.8%라고 보고 나머지가 21.2%이다. 제목설교가 성서를 주축으로 해서 주제를 설명한다고 보면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그렇지 못한 현실임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설교의 성서중심적인 사상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說教의 目的

설교의 목적을 考察하는 것은 설교의 狀態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설교자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을 이해하기 위해서 必要하다고 본다.

설문 4. 설교자는 설교의 목적을 정하고 설교해야 한다.

위 설문에 대해서 찬성비율이 91.1%이다. 이것은 설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설교해야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본다. 이와같은 결과는 유능한 설교자 21명에 대한 면접 7. “설교를 準備하실 때 說教의 目的을 생각하시면서 準備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2%가 그렇다고

⁴⁷ 김성호, “한국교회 설교는 건전한가?”, 『월간목회』, 1981. 1, pp. 24-25.

대답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설교자들이 설교의 目的을 大部分 다 정하고 說教準備를 한다는 結論이다.

설문 5.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의 必要에 의해서 전도적인 목적과 教育的인 目的으로 양분되어야 한다.

설교의 목적을 복음전도적인 목적과 신자들의 교화를 위한 教育的인 目的으로 양분하는데 대해서 찬성결과가 67.8%이고 찬반미결이 22.2%이며 반대가 10%이다. 21명의 유능한 설교자에 대한 면접 8의 “어떠한 설교 목적을 주로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면접결과는 15명의 설교자들이 회중의 요구 즉 복음전도적, 敎訓的, 치유적, 사회예언적인 목적을 생각한다고 응답하므로 71.4%가 복음전도적이고 교화적인데 찬성한다. 나머지 23.8%도 生活的 變化나 信仰人格에 연관시키고 있으므로 건전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설교자들이 설교의 목적이 必要함을 인정하지만 아직도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설문 19. 설교는 청중들의 실제적인 必要에 따라 작성해서 해야 한다.

위 설문에 대한 찬성은 75.5%이고 찬반미결이 15.6%, 반대가 8.9%이다. 설교는 인간의 구체적인 必要에 부합되는 설교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위의 설문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24.5%가 미정과 반대의견으로 나타난 것은 설교자들이 설교의 목적에 대하여 좀더 분명한 이해를 할 必要를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나 설교자가 너무 청중의 必要에만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고 따라서 한국교회 병폐 가운데 하나인 기복적인 신앙을 합리화하는 설교가 될 危險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설교자는 청중의 구체적인 狀況과 유리해서 설교의 목적을 정해서는 않되겠으나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어긋나는 비뚤어진 설교목적들을 갖는 잘못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지 설교자는 성서본문의 목적과 자기설교의 목적이 일치하도록 목적을 설정하고 설교해야 하는 것이다.

(3) 說教者의 人格

설교자의 人格과 說教는 분리할 수 없이 중요한 관계가 있다.

설문 2. 설교는 성별된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위 설문의 결과는 98.9%가 찬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성별된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가 설교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설교에 사용하는 시간 수에 의해서 설교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대현상이 생길 것으로 본다. 브리자이드(Samuel W. Blizzard)가 1,300명의 목회자에게 조사한 그들의 직무 가운데 중요성의 순서는 첫째가 설교자이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必要한 時間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라고 했을 때 설교자는 행정가, 목회자, 예배인도자, 조직자, 설교자, 교사의 순서, 즉 다섯번째의 순서로 나타난 것을 보여 주었고, 平均 11시간 30분 일할 수 있는 1일 동안에 說教準備에 使用한 時間은 平均 38分 뿐이었다고 한다.⁴⁸ 이런 현상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심방과 상담, 관혼상제, 뚝잔치, 환갑잔치에 時間을 쏟다 보면 결국 강단 목회에 충실할 수가 없다”⁴⁹는 지적에서 나타나듯 설교의 기능이 우선순위에서 뒤바뀐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설문 9. 주일 낮 예배시간의 설교 한편을 準備하기 위해서 적어도 8시간 이상은 할애해야 한다.

위 설문에 대한 찬성이 75.5%이고, 찬반미결이 23.3%로 나타났다. 설문 2에서 설교는 목회자의 중요 임무이라는 응답에 대한 찬성이 98.9%인데 비교하면 역시 說教準備에 使用하는 時間比率로는 한국의 설교자들이 충분한 時間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설문 3. 설교는 설교자의 人格과 그다지 큰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이 설문은 설교자와 그의 人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의 결과인데 연관이 있다는 응답결과가 93.3%이고, 연관이 없다고 응답한 比率이 5.5%이고

⁴⁸ 브라운, 「설교방법론」, p. 24.

⁴⁹ 朴根遠, p. 12.

나머지가 1.1%이었다. 위 결과는 설교자의 人格이 설교에 미치는 影響을 설교자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싶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결과가 약 6%인 것은 퍼센트의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우려되는 결과로 본다. 특히 현재 극소수이지만 설교자들의 人格이 水準이하로 떨어지는 狀態가 교회강단에 주는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소수이지만 신중히 고려해서 시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설문24. 설교자로서 자신이 매일 읽는 성경 장(章)수는 몇장입니까?

응답구분	매일 안 읽음	1장 이하	2-4장	5-10장	10장 이상	무응답	계	수
구성비	7.8	11.1	25.6	30	16.7	8.9	100.1	90

위 설문의 결과는 83.4%가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응답이었고, 16.7%가 매일 안 읽는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위 설문에 응답한 설교자들의 人格에 대하여 다시 살펴볼 必要를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성서는 성도의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설교의 자료의 원천이 되는데, 성서를 매일 읽지 않을 때에 그 설교자에게서 생명력 있는 설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說教의 方法的인 面에서

說教의 內容이 聖書的인 설교이어야 함은 勿論 說教方法에 있어서도 이에 적합한 方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설문지를 중심해서 설교의 準備, 構成, 傳達, 評價 등에 대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1) 說教의 準備

설교준비는 충분하게 되어야만 한다(설문 8)는데 대해서는 98.9%가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說教準備 時間도 74.5%가 주일 낮 설교 한편을 위

해서 8 시간 이상 할애해야 한다고 응답한다. 이것을 보면 설교준비에 대한 必要는 충분히 인식하는 듯 하나 實際로 설교준비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2) 說教의 構成

설문 7. 설교는 분명하게 組織되어야만 한다.

위 설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찬성비율이 67.8%이고, 찬반미결이 21.1%이며, 반대가 11.1%이다. 대체로 說教의 組織을 찬성하나 찬반미결과 반대의견이 32.2%나 되는 것은 설교의 조직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결과로 본다. 그러므로 설교의 조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충실히 강의해야 한다고 본다. 有能한 설교자들에 대한 면접11. “귀하는 어떻게 설계구조를 작성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은 대개 서론, 본문, 결론으로 하되 세대지 구조를 하고 본문이나 제목을 파헤치는 설교를 하되 狀況說教는 狀況說明을 먼저한다는 의견이 57.1%이고, 본문, 제목, 주석설교로 하되 논리설교는 논리적으로, 심리설교는 호소적으로 한다는 의견이 9.5%이고, 어떤 틀에 놓지 않는다는 강물 Style이 33.3%이었다. 설교의 구성은 설교자의 성질과 설교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겠으나 전통적인 方法 즉 서론, 본문, 결론 등으로 構成하는 것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

설문 10. 설교의 모든 내용을 完全한 원고를 작성하여 설교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응답구분	적극찬성	찬 성	그저그렇다	반 대	적극반대	계	수
구성비	21.1	54.4	15.6	7.8	1.1	100.0	90

그의 처음 목회의 10년동안은 그가 말하려는 모든 것을 글로 써야 한다는⁵⁰ 타당한 제안을 받아 들일 때에 설교의 모든 내용을 完全한 원고로 작성해야 한는데 75.5%만 찬성하고 있음은 아직도 설교준비에서 원고작성

⁵⁰ 브라운, 「설교방법론」, p. 209.

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할 것으로 알고 이번에 대해 더 철저히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현대인들이 작문능력에 대한 訓練이 미급한 점을 감안해서 더욱 신중하게 이 문제를 설명해야 하겠다.

설문 11. 설교내용 중에서 말할 줄거리만 개요해서 설교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위 설문지에 대한 답은 찬반미결이 50%이고 찬성비율이 35.5%이며, 반대비율이 14.4%이다. 이것은 설교자들이 설교원고를 작성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알면서도 實際로는 설교의 개요만 작성해서 설교하는 형편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학 강의시간에 설교의 원고작성과 개요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야 하겠다. 즉 설교의 원고를 完全히 작성하되 설교 전달시에는 개요만을 다시 작성해서 설교하도록 하는 것이다.

설문15. 설교는 약간 어렵더라도 권위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찬성이 2.2%인데 반대는 82.2%이다. 이것은 설교를 작성할 때 권위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찬반미결이 15.6%인 것은 이 방면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미급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설문16. 설교자가 설교작성시 교인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설교에 내포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 설문의 결과는 반대가 82.3%이고, 찬반미결이 8.9%이고, 찬성이 7.8%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설교에 내포될 수 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10%이상이 미움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설교를 작성할 때 설교의 내용은 성서만 설교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이해를 좀 더 철저히 인식시켜야 하겠다.

설문20: 설교할 때 매번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위 설문은 설교를 조직할 때 예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찬

성이 41.1%이고 찬반미결이 46.7%이며, 반대가 11.1%이며 무응답이 1.1%이었다. 이것은 설교에서 예화(증) 사용을 어떻게 적절히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설교구성에서 설교의 기능적인 요소의 하나가 예증임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설문27. 귀하가 예화를 사용한다면 다음 예화들 가운데 어떤 種類의 예화를 가장 좋아 하십니까? 좋아하는 순서대로 세개만 1, 2, 3으로 표해 주세요 : 한국소설, 외국역사, 외국의 문제된 사건, 시, 한국역사, 외국소설, 일상생활, 극, 한국의 문제된 사건.

위 설문의 결과는 첫째는 일상생활이 76.6%이었고, 둘째는 한국의 문제된 사건이 46.7%이며, 셋째는 외국의 문제된 사건이 22.2%이었다. 그 외에 한국역사와 외국역사가 첫째, 둘째, 셋째에서 공동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기타 항목들도 열거 되었으나 그 비율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것은 예화의 種類가 주로 일상생활과 국내외의 문제된 사건과 역사에서 많이 선택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예화(증)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면에서 예화의 다양한 자료활용을 설명하여야 하겠다.

(3) 說教의 傳達

설문 10과 11에서 원고를 작성하여 설교해야 한다는 답이 75.5%이었고, 개요만 작성해서 설교하는데 대해서는 찬반미결이 50%이었다. 이것은 설교전달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確實한 이해가 되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설문12. 설교전달시에 청중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원고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 설문은 원고설교의 단점을 감수하면서도 원고설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의 결과이다. 반대가 75.6%이고 찬성은 7.8%이며, 찬반미결이 15.6%이다. 이 결과를 설문 10의 “모든 설교는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는 결과(75.5%)와 대조해 보면, 설교작성을 위한 원고작성과 설교전달을 위

한 원고설교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교자는 전달의 效果를 위해서 원고설교를 탈피할 수 있음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설문 13. 설교전달할 때 설교자는 원고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달해야 한다.

이 설문은 다양한 응답이 제시되어 있다. 찬성이 47.8%이고 찬반미결이 31.1%이며 반대가 21.1%이다. 이것은 설교전달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설교전달의 다양한 방법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한다.

설문 21. 설교자의 제스처는 설교에 크게 影響을 끼친다.

이 설문에 대한 찬성은 72.2%이고 반대는 2.2%이다. 이것은 설교전달시에 제스처가 미치는 影響이 중대함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나 찬반미결이 25.6%나 되는 것은 아직도 제스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설문 26. 설교를 전달할 때 설교자의 態度는 다음중 어떠한가 하는가 (1) 적극적, (2) 부정적.

이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적극적이어야 한다가 92.2%이었다. 이것은 설교자의 적극적인 態度가 설교에 미치는 影響이 많은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實際로 어떻게 해야 설교자의 態度가 적극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잘 연구해서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설문 25. 설교를 전달할 때 설교자의 음성이 다음중 어떠한가 하나? (1) 유쾌해야 한다. (2) 불유쾌해도 된다. 그 이유는?

위 설문의 결과는 유쾌해야 한다가 84.4%이고, 불유쾌해도 된다가 10%이며 무응답이 5.6%이었다. 이것은 설교자의 음성이 유쾌해야 함을 대부분 찬성하나 나머지 15.6%가 반대의견과 찬반미결로 응답한 것은 설교의 경우와 내용에 따라서 음성이 불유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설교자의 음성이 어떻게 해야 유쾌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설명해야 하겠다.

설문 22. 가장 적당한 설교의 시간은 몇분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위 설문의 결과로써 나타난 가장 적당한 설교시간은 21-25분이 38.9%이고, 26-30분이 32.2%이며, 31-35분이 16.7%이고, 15-20분이 10%이다. 20-30분이 71.1%로써 가장 많은 비율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가장 적당한 시간은 20-30분 내외임을 나타낸다고 본다.

필자는 21명의 유능한 설교자들과의 면접 16, 17에서 설교준비와 전달할 때 의사전달 이론(Communication theory)을 사용하는 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어느 형태로든지 사용한다가 52.3%이고, 않는다와 무반응이 47.6%이었다. 또한 의사전달 이론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무응답이 61.9%이고,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의 종합이 38.2%이었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대부분이 의사전달(Communication)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주의 깊게 계속되어야 하겠다.

(4) 說教의 評價

설교의 평가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效果的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說教의 評價가 必要하다고 보아서 설문과 면접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설문 14. 설교에 대한 평가를 사모나 허물없는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좋다.

이 설문의 결과는 사모나 허물없는 친구들을 통해서 설교의 평가를 듣는 것을 87.8%가 찬성하고, 찬반미결이 7.8%이며, 반대가 4.4%이다. 이것은 說教의 評價를 받는 것을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나 또한 설교평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본다. 21명의 유능한 설교자에 대한 면접18. “설교비평을 어떤 방법으로 듣습니까?”에서는 사모나 집사들을 통해서가 42.9%이고, 자기 스스로, 녹음테이프가 33.3%이며, 소그룹이 모여 Feedback 이론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23.8%이었다. 이것은 설

교비평에 대해서 아직 확고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함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설교의 평가에 대한 연구를 더해서 설교를 效果的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說教學 教材에 대한 概觀

說教學을 강의하기 위해서 설교학에 대한 책을 區分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설교의 神學, 歷史, 準備方法, 傳達이다. 필자가 “가장 좋은 설교학 교재 5 권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면접의 결과⁵¹ 소개된 책 가운데서 설교학 강의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취급한 10권을 선택해서 개관하고자 한다.

1. Broadus, John A.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4th ed. Rev. by Vernon L. Stanfield. New York: Harper & Row, 1979.

이 책은 1870년에 John A. Broadus에 의해 *A Treatise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그리고 1897년에는 E. C. Dargan에 의해서 개정판으로 나왔다. 1943년에는 J. B. Weatherspoon에 의해서 3 판으로 개정되어 나왔다. 1979년에는 4 판으로 Vernon L. Stanfield에 의해서 개정되었다. 1983년에는 鄭聖久박사가 「說教學 概論」으로 역편하였다.

이 책은 서론과 8부로 구분되었고 모두 36장인데 설교작성의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서론과 8부의 끝에는 각부에 추가 독서 자료를 소개함으로 그 부분에 대한 참고서적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할

⁵¹ 필자는 5 명의 현직 설교학 교수들과 16명의 유능한 설교자들을 상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수 있게 한다. 서론에서는 설교의 정의와 중요성, 학문적인 필요, 설교자와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한다.

제 1 부에서는 본문, 주제, 제목, 명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2 부에서는 설교를 구조, 주제 그리고 형태에 의해서 분류한다.

제 3 부에서는 설교의 형식적인 요소(formal elements)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자료정리의 중요성, 본론(Discussion), 서론, 결론, 전이(Transition)를 포함한다.

제 4 부에서는 설교의 기능적인 요소(Functional elements)를 설명, 논증, 적용, 예증으로 설명한다.

제 5 부에서는 설교의 양식과 설교의 구상 및 기록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6 부에서는 설교의 준비와 계획을 설명한다.

제 7 부에서는 설교전달의 방법, 설교자의 음성, 자세, 그리고 설교전달의 현대적인 접근법을 설명한다.

제 8 부에서는 공중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책은 설교학의 교재로써는 고전적인 권위가 있는 완벽한 책으로 보는 것이 편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설교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⁵²

2. 블랙우드, A. W. 「설교준비법」. 梁承達역. 부산:성암사, 1976.

블랙우드(A. W. Blackwood)는 본서를 “설교내용에 대한 것보다 설교방법에 대한 것을 주로 취급하였다.”⁵³ 고 소개한다. 이 책은 전부 24장으로 구분해서 설교준비 방법을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설교의 형태를 전통적인 세가지 형태인 본문설교, 주해설교, 제목설교로 구분해서 자

⁵² 면접한 5명의 설교학 교수들 가운데 4명이 이 책을 가장 좋은 교재로 소개했다.

⁵³ 블랙우드, 「설교준비법」, p. 3.

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 설교의 준비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를 각장에서 간명하게 취급하므로 설교자들이 그때 그때 읽고 설교준비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다. 책의 주요 내용은 설교자의 인간의 요구에 대한 자각과 설교의 준비, 서론과 결론의 준비, 설교 구성에 대한 문제, 예화사용, 설교의 문체, 강단에서의 전달 등이 들어 있다.⁵⁴

3. 로이드-존즈, D. M. 「목사와 설교」. 서문강역. 서울: 예수교문서 선교회, 1977.

본서는 로이드-존즈가 40여년간의 목회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교의 원리와 실체를 1969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6주동안 특강한 강의 내용이다. 로이드-존즈는 설교의 우위성을 강력히 증거하고 설교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설교자는 이 말씀을 사람들의 전인격(全人格)에 따라오는 환경과 문제와 시험을 향해서 설교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 책에서는 설교의 유형을 전도적인 설교, 체험적인 교훈설교, 순수한 교훈적인 설교로 나누어 설명한다. 설교는 성경본문을 강해하는 설교이어야 하며 논증과 주장의 진전이나, 전진, 또는 논증의 발전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설교자가 목표하는 것에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설교의 행위는 설교자의 전인격으로 열심히 전달해야 한다. 설교자는 반드시 소명받은 자로서 일반적인 훈련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설교자는 “여기와 지금” “오늘의 상황” “오늘의 인간”에 계속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이 책은 또한 설교자의 설교준비와 조직에 대해서 언급하며 설교 전달시의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설교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기쁨

⁵⁴ 면접한 5명의 설교학 교수 가운데 3명이 이 책을 소개했다.

부으심에 대해 강조한다.

4. 郭安連, 「說教學」, 대한기독교서회, 1954.

저자는 미국에서 나온 30여종의 설교학 책의 내용의 골자에다가 자기가 실제로 실천해서 배운 것들을 덧붙여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했다.⁵⁵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편은 총론으로써 설교의 과학과 기술을 설명하면서 설교의 중요성과 가치들을 설명한다. 제 2 편은 설교의 구성으로써 설교를 정의, 분류하고 본론의 정리에서 통일, 순서, 전진을 설명하며 본문의 선택과 이해를 설명한다. 그리고 제목, 서론, 결론을 설명하고 본론의 구상과 작성을 설명한다.

제 3 편은 설교의 특징으로써 설교의 준비와 적용, 예증, 논증, 창의성, 어체(語體) 등을 설명한다. 제 4 편은 각 종류의 설교를 설명하면서 주석설교, 예증설교, 부흥설교, 아동설교, 임시 특별설교, 연속설교 등을 설명하고 설교의 전달방법과 설교자의 태도 등을 설명한다.

5. 브라운, H. C. Jr.; 크리나드, H. G.; 노스커트, J. J. 「說教方法論」. 이정희 역편. 요단출판사, 1983.

이 책은 미 서남침례신학교에서 1960년대 부터 설교학 교재로 계속해서 사용되어 온 책이다. 저자들은 “이 책은 하나의 설교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설교학적인 항목들을 정의하고, 예증하며 적절한 순서로 배치한다.”⁵⁶고 소개한다.

설교자는 여덟 단계에 의해서 효과적인 설교를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은

⁵⁵ 郭安連, 「說教學」, p. 3.

⁵⁶ 브라운, 「설교방법론」, pp. 11-12. 필자가 저자중 한 분이신 노스커트교수를 1982년 면담했을 때 이 책을 가장 좋은 교과서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1. 준비된 설교자, 2. 설교할 이념, 3. 해석된 본문, 4. 관련된 자료 수집, 5. 확실한 성숙, 6. 완성된 구성, 7. 다듬어진 설교, 8. 전파된 메시지이다.

제 1 단계는 준비된 설교자가 설교의 본질과 목적, 그 역사와 현상태를 알고 설교자의 자격을 깊이 깨달아야 함을 언급한다. 제 2 단계는 설교할 이념을 발견하고 확립시키는 것이다. 제 3 단계는 설교할 본문을 해석하는 원리와 방법을 설명한다. 제 4 단계는 설교준비를 위한 자료수집과 보관에 대해서 언급한다. 제 5 단계는 설교할 이념을 충분히 성숙시키는 단계이다. 제 6 단계는 설교의 구조를 제목, 본문, 결론, 서론, 초청으로 설명하고 설교를 8가지로 분류한다. 제 7 단계는 설교를 언어의 양식으로 완성하도록 기록하고 다듬는 단계이다. 제 8 단계는 준비된 설교를 전달하는 설교자의 인격, 음성, 자세, 전달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6. 바우만, 제이 다니엘. 「現代說教學入門」. 鄭長여. 양서각, 1983.

바우만은 “이 책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는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 세가지 요소란 (1)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2) 성서의 진리 (3) 삶의 변화를 말한다.”⁵⁷ 제 1 편은 설교 커뮤니케이션으로써 과정, 설교자, 청중, 환경과 설교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 2 편은 설교의 정의를 성서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내리면서 성서적 설교의 진전과정, 형태 등을 설명한다. 또한 설교의 일반적인 준비와 직접적인 설교준비, 설교의 주제와 명제와 제목의 구분과 특징, 그리고 성서적 설교의 서론과 결론을 설명한다. 또한 성서적 설교의 내용을 개관하고 자료를 전개하며 언어의 양식으로 완성하도록 설명한다. 이어서 예화의 형태, 자료사용에 대한 제안을 언급하고 끝으로 설

⁵⁷ 바우만, 「現代說教學入門」, p. 15.

교전달시에 설교자의 외모, 자세, 시선교환과 음성 및 설교전달방법을 설명한다. 제 3 편은 5장으로 나누어서, 설교의 목적, 변화의 역할,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화설교로 청중을 설교에 참여하고 관계를 맺도록 주장한다. 끝으로 설교의 결과로 오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7. Brooks, Phillips. *Lectures On Pr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69.

이 책은 Boston시 삼위일체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자요, 설교자이었던 브룩스가 1877년에 강의한 설교학 예일강좌 내용이다.

브룩스는 그의 통찰력과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실천사항을 강의하였다.

강좌내용은 8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장은 설교의 두가지 요소들 로써 진리와 인격을 들었다. 2 장은 설교자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은 그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성질, 방법, 그리고 정신을 설명한다. 4 장은 설교의 이념을 설명한다. 5 장은 설교작성에 대해서, 6 장은 청중에 대해서 설명한다. 7 장은 설교자의 시대에 맞는 설교에 대해서 언급한다. 8 장은 인간 영혼의 가치를 알고 설교할 때 능력이 있음을 설명한다. 이 책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읽고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8. Davis, H. Grady.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8.

이 책은 1958년 출판된 이래 1979년까지 12번이나 재판되어 나온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주로 실제 설교내용이나 설교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

함이라고 언급한다.⁵⁸ 책의 내용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내용과 형식, 2. 용어에 대한 각주, 3. 아이디어 분석, 4. 자원으로써 본문, 5. 주제란 무엇인가?, 6. 발전된 생각, 7. 기능적인 형태: 선포, 8. 기능적인 형태: 가르침과 치료, 9. 유기적인 형태, 10. 계속: 성질과 형태, 11. 계속: 서론과 결론, 12. 시제와 기분, 13. 해석의 과제, 14. 발전의 형태, 15. 귀로 듣게하기 위한 기록이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어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책으로 본다. 특히 매장 끝에 제안들을 통해서 참고할 문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매우 좋다. 참고문헌을 몇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하는 것은 꼭 도움이 된다. 그것은 I. 설교준비에 대한 기술, II. 설교목회, III.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논술, IV. 연설과 기록, V. 설교문으로 소개되었다.

9. Jones, Ilion T.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이 책은 실제 설교를 행할 때에 설교원리들을 적용함으로 그의 기술을 평가하고 증진하도록 계획되었다. 책의 내용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설교의 배경으로써 설교의 중요성, 목적, 설교자의 역할을 설명한다. 제2부는 설교계획인데 초기단계들로 이념, 본문, 주제를 언급하고,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와 절차에 의해서 설교를 개요하고, 그 다음에 개요의 형태에 의해서 설교를 개요한다. 제3부 설교의 준비에서는 (1) 매주 설교준비 계획으로써 설교 본문을 잘 연구함으로 설교할 이념을 착상하고 참고서적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임시 개요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설교의 완전한 개요를 작성하고 설교를 완전한 원고로 기록하고 그 설교를 점검하고 설교할 자신을 준비한다. (2) 예증 재료의 준비, (3) 서론과 결론의 준비, (4) 설교의 양식 즉 설교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설명한다.

⁵⁸ Davis. *Design For Preaching*, p. Vi.

제 4 부 설교전달에서는 설교전달의 방법들, 말의 기교(speech mechanism) 즉 발성, 발음, 보이는 의사전달 등을 설명한다. 제 5 부는 설교의 자료수집인데 설교이념을 수집하고, 설교재료를 철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 책은 설교준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설명하는 점에서 브라운의 「설교방법론」의 이론을 많이 보충설명한다고 본다.

10. Skinner, Craig.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Pulpit*.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73.

Skinner는 Australia의 Talbot 신학교의 실천신학교수로서 있었는데, 설교는 교회의 가르치는 목회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말하면서 1부, 설교에 대한 역사적인 전망 2부, 설교에 대한 신학적인 전망, 3부, 설교에 대한 심리학적인 전망, 4부, 설교의 실재를 다루었다. 설교의 실제에서는 목적, 계획, 구조, 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분해서 설교의 실재를 요약한다. 이 책에서는 설교를 가르치는 일로 보는 면에서 새롭게 설교에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문제에 참고할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본다.

IV. 說教學 講議方法에 대한 提案

필자는 說教學 講議方法에 대한 提案을 이미 언급한 說教의 神學과 韓國 教會 說教의 門題點등을 살펴보면서 강의 내용면에서와 강의 방법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1명의 유능한 설교자와 가진 면접 결과와 앞장에서 개관한 10卷의 說教學 教材를 참조해서 說教學 講議內容을 정리해 본 후 적절한 강의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講議內容 面에서

면접 3. “가장 좋은 설교학 강의방법은”에 대한 反應으로는 한 학기 이론과 한 학기 實際로 설교를 演習하는 것으로 면접자 21명 중에서 71.4%의 反應을 보이었다.

면접 4. “설교학 강의 내용으로 꼭 필요한 내용은”에 대한 반응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대개 설교자의 準備와 確信, 實際 說教方法, 說教者와 說教의 實際方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특히 매주 설교강단에서 설교하는 說教者들의 요구는 說教의 實際方法과 성서 해석법, 說教의 傳達(Communication)에 대한 강의를 50% 이상이 요청하고 있었다.

면접 5. “어떠한 교수목적을 정해야 하겠습니까”에 대한 반응에는 52.4%가 설교자의 人格確立이라고 응답했고 23.8%가 전문적인 설교자의 能力培養으로 반응을 보이었다. 특히 설교학 교수들의 반응에는 說教者의 人格確立이 60%의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문적인 說教者의 能力培養이 40%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위와 같은 면접반응을 살펴볼 때에 說教者의 準備와 說教의 實際方法에 대한 것이 강의내용으로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위 면접 반응에 비추어 보면서 說教學 教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說教學 講議內容을 定立하고자 한다.

(1) 說教者의 準備

教會의 牧會效果는 인간의 人格에 의존되기 때문에 說教는 說教者의 人格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⁵⁹ 說教者가 說教者로서 確實한 召命과 깨끗한 人格을 갖추고 있다면, 說教의 課業은 이미 成功的인 結果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說教의 內容이 좋고 설교전달방법

⁵⁹ 프랭클린 M. 지글러, 「牧會學 概論」, 李晶熙역(서울: 요단출판사, 1977),

이 좋다고 하더라도 說教者가 準備되지 않았으면 그 說教의 效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훌륭한 說教學의 教材로 선정된 10卷의 冊 가운데서는 郭安連과 H. Grady Davis의 冊을 除外한 8卷이 說教者의 準備를 重要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說教者는 說教課業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면서 說教者의 確信을 가져야 한다. 說教者의 準備를 다음과 같이 개요해서 정리할 수 있겠다.

1. 說教의 神學 및 定義
2. 說教者의 資格
3. 說教의 歷史
4. 說教의 目的

(2) 說教의 準備方法

說教者가 설교의 課業에 대해서 충분히 理解하고 설교자의 資格을 갖추게 되면 實際로 說教를 準備하는 方法을 알고 準備해야 할 것이다. 說教의 實際 準備方法은 大部分의 說教學 教材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參照해서 설교의 準備方法을 다음 몇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 1 說教의 主題와 本文選擇
2. 說教本文의 解釋
3. 說教의 資料蒐集
4. 說教의 構成⁶⁰
 - 1) 說教構成의 必要性和 特性
 - 2) 說教構成의 要素
 - ① 題 目
 - ② 序 論

⁶⁰ 필자는 “說教의 構成에 대한 研究”, 「浸神論集」, 第六輯 1983. pp. 161-185. 를 연구발표하였고 이를 강의내용으로 하겠다.

③ 本 論

④ 結 論

3) 說教의 分類

5. 說教의 樣式(style)

(3) 說教의 傳達

說教의 傳達은 說教의 마지막 단계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準備의 열매를 가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說教의 傳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

1. 說教의 傳達理論(Communication)

2. 說教 傳達者의 姿勢와 動作

3. 說教 傳達者의 音聲

4. 說教의 傳達方法

5. 說教 傳達者의 人格과 聖靈의 役事

(4) 說教의 練習과 評價

說教學 理論을 學習하는 內容에는 배운 理解를 實際로 적용하는 練習이 必要하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1. 說教作성과 評價

2. 說教演述과 評價

2. 講議 方法面에서

설교학의 강의내용을 어떻게 效果的으로 講議하느냐? 하는 問題는 說教學을 수강하는 대상과 교수의 성질과 의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기서는 필자가 면접과 연구를 통해서 얻은 방법을 간략히 진술하도록 하겠다.

(1) 講議時間

면접 2. “적당한 주당 설교학 강의시간은”이라는 질문에 57.1%가 주당 3시간해서 두학기를 강의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침례신학대학의 경우는 현재 주당 3시간 해서 설교학 이론은 필수로 한학기, 설교연습은 선택으로 한학기 강의하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 적당한 설교학 강의시

간은 한학기는 說教學의 理論을 강의하고 한학기는 說教의 演述을 필수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2) 講議計劃과 方法

① 講議目的：說教者로 부름받은 牧會者들로 하여금 說教의 理論과 實際를 習得하여 能力있는 說教者가 되게 한다.

② 강의의 範圍：1, 2 학기로 나누어 강의한다. 1學期에는 설교자와 說教準備의 實際方法과 傳達의 理論을 강의한다. 2學期에는 說教를 練習함으로 배운 說教學 理論을 실제로 適用하게 된다.

③ 講議內容과 日程

1學期 說教理論에 대한 강의

주순(주당 3시간)	강 의 내 용
1 주	과목소개
	1. 설교자의 준비
	(1) 설교의 신학 및 정의
2 주	(2) 설교자의 자격
	(3) 설교의 역사
3 주	(4) 설교의 목적
	○ 설교자의 준비에 대한 시험
4 주	2. 설교의 준비방법
	(1) 설교의 주제와 본문선택
5 주	(2) 설교본문의 해석
6 주	
7 주	(3) 설교의 자료수집
8 주	(4) 설교의 구성
	① 설교 구성의 필요성 및 특성
	② 설교 구성의 요소：제목

9 주	본론
10 주	
11 주	서론과 결론
12 주	③ 설교의 분류
13 주	(5) 설교의 양식 ○ 설교의 준비방법에 대한 시험
14 주	3. 설교의 전달 (1) 전달이론 (2) 전달자의 자세 및 동작
15 주	(3) 전달자의 음성 (4) 설교의 전달방법
16 주	(5) 설교전달자의 인격과 성령의 역사 ○ 설교의 전달에 대한 시험 및 학기말 종합시험

2 學期 說教의 練習과 評價

주순(주당 3시간)	강 의 내 용
1 주	과목 소개
2 주	설교작성과 평가
3 주	설교연술과 평가
4 주부터	설교연술과 작성에 대한 평가
15 주까지	
16 주	종합 평가

④ 教科書 및 參考圖書

가. 教科書 : 브라운, H. C. Jr. : 크리나드, H. G. : 노스커트, J. J. 「說教方法論」. 이정희 역편. 서울 : 요단출판사, 1983.

나. 主要 參考圖書⁶¹

1. 설교자의 준비를 위한 참고서

郭安連, 「說教學」

월치만, 「말씀의 사역」

바우만, 「現代說教學入門」

朴根遠, 「오늘의 說教論」

베이커, 「實踐神學事典」I

보렌, 「說教學原論」과 「說教學實踐論」

브릴리오드, 「說教史」

블랙우드, 「설교준비법」

스탯트, 「설교자 像」

스펄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1권

이주영, 「現代說教學」

악트마이어, 「舊約聖書와 福音宣布」

鄭長福, “설교의 재발견”

존즈, 「목사와 설교」

케네디, 「說教의 理論과 實際」

탈리케, 「現代教會의 고민과 說教」

後藤光三, 「說教學」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Brooks, *Lectures on Preaching*

Brown, *A Quest For Reformation In Preaching*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

Jon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⁶¹ 여기서 主要參考圖書는 저자의 성명과 책이름만 기록했다.

參考文獻을 參照바람.

Linn, *Preaching As Counseling*

Miller, *Fire In Thy Mouth*

Pattison, *The Making of the Sermon*

Robinson, *Biblical Preaching* (강해 설교)

Sangster, *The Craft of Sermon Construction*

Skinner,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Pulpit*

2. 설교의 준비방법을 위한 참고서

鄭安連, 「說教學」

램, 「聖經解釋學」

바우만, 「現代說教學入門」

朴根遠, 「오늘의 說教論」

벌코프, 「聖經解釋學」

베이커, 「實踐神學事典」I

블랙우드, 「설교준비법」

—————, 「연중설교계획」

스펄전, 「스펄전의 說教學」

이주영, 「現代說教學」

鄭長福, “설교학강의” 기독교사상, 1981.

존즈, 「목사와 설교」

크리스웰, 「목회자 지침서」

케네디, 「說教의 理論과 實際」

탈리케, 「現代教會의 고민과 說教」

後藤光三, 「說教學」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Brooks, *Lectures on Preaching*

Brown, *A Quest For Reformation In Preaching*

Davis, *Design For Preaching*

Jon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Koller, *Expository Preaching Without Notes*

Linn, *Preaching As Counseling*

Miller, *The Way To Biblical Preaching*

Pattison, *The Making of the Sermon*

Perry, *Biblical Preaching For Today's World*

———, *Evangelistic Preaching*

Robinson, *Biblical Preaching* (강해설교)

Unger,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Sangster, *The Craft of Sermon Construction*

Skinner,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Pulpit*

Stott, *Between Two Worlds*

Sweazey, *Preaching The Good News*

3. 설교의 전달에 대한 참고서

郭安連, 「說教學」

바우만, 「現代說教學 入門」

朴根遠, 「오늘의 說教論」

베이커, 「實踐神學事典」I

보렌, 「說教學實踐論」

블랙우드, 「설교준비법」

라이드, 「說教의 危機」

스필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1, 2 권

———, 「스필전의 說教學」

이주영, 「現代說教學」

鄭長福, “설교학강의” 기독교사상, 1981

존즈, 「목사와 설교」

차티어, 「설교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崔昌燮,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총론」

하우, 「說教의 파아트너」

後藤光三, 「說教學」

Adams, *Pulpit Speech*

Abbey, *Communcation in Pulpit and Parish*

Bartow, *The Preaching Moment*

Bro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Fant, *Preaching for Today*

Jon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Linn, *Preaching As Counseling*

Pattison, *The Making of the Sermon*

Robinson, *Biblical Preaching* (강해설교)

Skinner,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Pulpit*

Stevenson & Diehl, *Reaching People from The Pulpit*

Sweazey, *Preaching The Good News*

⑤ 教授方法과 課題

가. 教授方法：一學期는 論議法을 主로 使用하고, 問答法, 討議法, Buzz 學習을 使用한다. 二學期는 學生들이 實際로 說教를 作成하고 演述하게 하고, 그것을 學級에서 共同으로 評價하고, Video tape 를 통해서 自己說教를 스스로 評價하고, 教授와 個人面談을 통해서 指導받는다.

나. 課題：다음과 같은 과제를 준비하고 제출한다.

1. 說教學 學習 note를 강의 내용과 학급토의 및 독서과제를 통해서

언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학기말에 제출하여 評價받는다.

2. 說教計劃書⁶²를 作成하여 제출한다. 1 학기는 4월 첫째 주간, 2 학기는 11월 넷째 주간.

3. 說教 本文에 대한 註釋⁶³을 4월 셋째 주간까지 제출한다.

4. 說教概要⁶⁴를 5월 둘째주까지 제출한다.

5. 說教原稿를 6월 첫째주까지 제출한다.

6. 說教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冊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서 9월 넷째주까지 제출한다.

7. 5篇의 훌륭한 說教文을 分析評價⁶⁵ 하여 10월 넷째주까지 제출한다.

8. 說教 本文에 대한 註釋을 自己가 說教演述하기 一週日 前에 제출한다.

9. 說教原稿를 自己가 說教를 演述하기 1日前에 제출한다.

10. 說教概要를 5篇 作成하여 격주로 제출한다.

⑥ 說教練習의 方法과 評價

a. 학기초에는 說教學理論을 질의응답으로 복습한다.

b. 설교개요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평가받는다.

⁶² 설교계획서는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혹은 1년 계획을 제출하되 매 주일의 강조사항, 공과주제등을 참조해서, 설교의 주요한 목적, 설교할 주제(Idea), 본문을 기록한다.

⁶³ 설교본문의 주석은 10단계로 해서 본문이 들어있는 성경의 상황, 경우, 저자, 목적, 수신자, 시기, 장소등 역사적인 해석과 수신자에게 무슨 말을 하려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문자적 해석과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내용으로 신학적인 해석을 포함한다.

⁶⁴ 설교개요는 본문, 제목, 본문의 중심 진리, 명제, 설교의 주요한 목적과 특수한 목적을 포함한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과 거기에 따른 예증을 기록하게 한다.

⁶⁵ 설교문 分析評價는 분석자가 자기 나름대로 설교개요양식에 따라 분석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설교의 구성요소에 따라서 그리고 설교양식에 의해서 설교의 장단점을 기록한다.

c. 각 학생은 학급에서 2篇의 15分 설교를 演述한다.

d. 說教演述 節次는 다음과 같다.

① 매시간 2명이 연술한다.

② 학급동료를 상대로 한 자기가 작성한 주석 혹은 본문설교를 原則으로 한다.

③ 설교 본문의 주석은 1주일 전에, 설교 원고는 1일 전에 제출한다.

④ 說教演述 前에 설교개요를 학급원에게 나누어 준다.

⑤ 설교평가서⁶⁶에 의해서 각 학급원은 說教演述者의 說教를 評價하고, 그 評價서는 모두어 교수에게 제출한다.

⑥ 교수는 학급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검토후 說教演述者에게 주어 설교 개선점을 발견하게 한다.

⑦ 每說教를 Video tape에 녹화하고 각 演述者는 자기 설교를 시청 후 자기평가서를 작성한다.

⑧ 說教演述者는 설교를 한 당일에 교수와 개인면담하고 지도를 받는다.

⑨ 說教演述者는 학급원의 평가서 결과, Video tape 시청 결과, 교수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자기설교의 개선점을 기록하고 개선할 計劃을 작성해서 교수에게 제출한다.

e. 說教의 評價原則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는 상호 협력하고 돕는 態度로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파괴적으로 하지말고 건설적으로 해서 개선에 도움이 되게 한다.

③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④ 설교하는 동안과 설교 후 2분동안에 평가내용을 기록한다.

⁶⁶ 설교평가서의 내용은 설교의 주제와 목적, 설교의 구성요소들 성경해석내용, 설교의양식, 설교자의 몸가짐과 음성등을 좋다, 보통이다, 빈약하다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평가자가 느낀 장점과 단점을 기록할 수 있겠다.

⑦ 學點算出方法

1 學 期

a. 각 단원의 시험	30%
b. 학기말 시험	20%
c. 과제물	30%
d. 학습참여도	10%
e. 출 석	10%

2 學 期

a. 說教演述	50%
b. 과제물	30%
c. 출 석	10%
d. 학습참여도	10%

說教學 講議方法에 대해서 필자 나름대로 제안 하였으나 教授原理와 方法面에서 깊이있게 研究하여 提案하지 못한 點이 몹시 아쉽다. 필자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에서 講議內容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갖의해야 한다고 본다. ① 說教者의 準備는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說教學을 受講하는 학생들은 牧會者의 召命과 人格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자로 간주하고 강의를 하며 다만 짧은 時間에 다시금 다짐하고 깨우치는 方向으로 강의해야 한다고 본다.

② 說教의 準備方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필자 나름대로 5가지로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보아 제안하였다. ③ 說教의 傳達에 대한 研究는 앞으로 한국교회 강단의 活力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더 연구되어야 하겠다고 보면서 說教者는 언제나 겸손히 聖靈의 引導에 順從해야 한다고 필자는 거듭 강조하고 싶다.

結 論

오늘날 韓國敎會가 世上을 救贖하는 和解的 敎會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社會를 위한 奉仕者의 姿勢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聖書의 中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人類救贖의 福音을 宣布하는 참된 說敎神學의 不在에 起因된다고 본다. 필자는 說敎의 神學을 먼저 說敎와 聖書의 關係에서 살펴보았다. 참으로 說敎는 聖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傳할 것이 없음을 分明히 認識해야 한다고 본다. 宣敎 百周年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욱 聖書에 中心한 說敎를 강조해서 行함으로 敎會復興과 世界宣敎의 기틀을 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說敎의 本質과 目的을 각 설교자가 충분히 이해하므로 사람들의 必要에 적합한 說敎를 해야 할 것이다. 說敎者들은 하나님의 召命에 合當한 人格을 갖추기 위해서 聖書와 부딪히고 聖靈과 만남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배우는 弟子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說敎의 重大한 課業을 遂行하기 위해서 全人的인 準備을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겠다.

韓國敎會의 說敎의 問題點은 우선 說敎神學의 定立이 안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經驗主義나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설교하는 일이 자주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설문에서 조사한 바는 그렇게 비판적인 결과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聖書中心한 건전한 설교를 강조하므로써 한국설교의 강단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說敎者들이 설교準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너무 바쁜 목회일정으로 因해서 충분한 說敎準備를 하지 못하는 點을 깨닫고 일의 우선순위를 說敎하는 일에 두고 研究와 祈禱에 專念해야 하겠다고 본다.

說敎學 教材에 대한 概觀을 하면서 필자는 대부분의 良書가 번역되어 있어서 강의교재로 活用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도 說敎의 歷史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冊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끝으로 필자는 說敎學 講議方法에 대한 提案을 說敎의 神學. 한국교회

설교의 問題點과 說教學 教材를 개관한 결과 등을 참조해서 제안해 보았다. 講議內容으로는 주로 세 구분해서 說教者의 準備, 說教의 實際準備方法, 그리고 說教의 傳達로 설명했다. 講議方法面에서는 강의내용의 요약과 일정, 그리고 주요참고서를 내용별로 구분해서 기록해 보았고 기타 강의과제와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說教의 課業은 死亡의 權勢를 이기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신 主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偉大한 과업이다.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說教者로 召命된 자들은 專力을 다해서 忠誠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위에 이루도록 해야 하겠다.

參考文獻目錄

- 郭安連. 「說教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25.
- 니, 월치만. 「말씀의 사역」. 권혁봉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 라이드, C. 「說教의 危機」. 鄭長福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램, 버나드. 「聖經解釋學」. 권혁봉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 로빈슨, 해돈. 「강해설교」. 朴英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바우만, 제이 다니엘. 「現代說教學入門」. 鄭長福역. 서울: 양서각, 1983.
- 朴根遠. 「오늘의 說教論」.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벌코프, 루이. 「성경해석학」. 윤중호, 송종섭역.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2.
- 보렌, 루돌프. 「說教學實踐論」. 朴根遠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_____. 「說教學原論」. 朴根遠역.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79.
- 브라운, H. C. Jr. : 크리나드, H. G. : 노스커트, J. J. 「說教方法論」. 이정희역편. 서울: 요단출판사, 1983.
- 브릴리오드, 잉그베. 「說教史」. 홍정수역. 서울: 기독교교문사, 1978.
- 블래우드, A. W. 「설교준비법」. 梁承達역. 부산: 성암사, 1976.

- _____ . 「연중설교계획」. 김형태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79.
- 스타트, 존. 「설교자 像」. 문창수역.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 스펄전, 찰스. 「목회자후보생들에게」 I. 이종태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2.
- _____ . 「목회자후보생들에게」 2. 이종태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2.
- 스펄전, C. H. 「스펄전의 說教學」. 김병로역. 서울:신망애사, 1979.
- 악트마이어, E. 「舊約聖書와 福音宣布」. 張一善역. 서울:大韓基督教出版社, 1981.
- 이주영. 「現代說教學」. 서울:성광문화사, 1983.
- 鄭聖久編. 「說教學概論」. 서울:세종문화사, 1983.
- 존즈, D.M. 로이드. 「목사와 설교」. 서문강역. 서울:예수교문서선교회, 1977.
- 차티어, M.R. 「설교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차호원역. 서울:所望社, 1984.
- 崔昌燮編.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총론」. 서울:성바오르출판사, 1978.
- 케네디, 제랄드. 「說敎의 理論과 實際」. 白理彦역. 大韓基督教書會, 1967.
- 크리스웰, W.A. 「목회자지침서」. 김경신역. 서울:정음출판사, 1984.
- 턴블, G. 랄프編. 「實踐神學事典」 I. 金昭暎, 朴根遠, 黃成奎역. 서울:大韓基督教出版社, 1977.
- 틸리케, H. 「現代教會의 고민과 說敎」. 沈一燮역. 서울:大韓基督教出版社, 1982.
- 하우, 루울. 「說敎의 파아트너」. 鄭長福역. 서울:良書閣, 1982.
- 後藤光三. 「說敎學」. 郭哲榮역. 서울:第一出版社, 1969.
- Abbey, Merrill R. *Communication in Pulpit and Parish*.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8.
- Adams, Jay E. *Pulpit Speech*.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 House, 1971.
- Bartow, Charles L. *The Preaching Moment*. Nashville : Abingdon Press, 1980.
- Blackwood, A. W. *The Preparation of Sermons*. New York : Abingdon Cokesbury Press, 1948.
- Broadus, John A.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ed.* rev. Vernon L. Stanfield. Sanfrancisco : Harper & Row, 1979.
- Brooks, Phillips. *Lectures on Pr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69.
- Brown, H. G., Jr. *A Quset for Reformation in Preaching*. Waco : Word Books, 1968.
- Dargan, Edwin Charles. *A History of Preaching*.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54.
- Davis, H. Grady.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58.
- Fant, Clyde E. *Preaching for Today*. New York : Harper & Row, 1975.
- Jones, Ilion T.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New York : Abingdon Press, 1956.
- Koller, Charles W. *Expository Preaching Without Notes*.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62.
- Linn, Edmund Holt. *Preaching as Counseling*. Valley Forge : The Judson Press, 1966.
- Miller, Donald G. *Fire in Thy Mouth*.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54.
- _____. *The Way to Biblical Preaching*. New York : Abingdon

- Press, 1957.
- Pattison, T. Harwood. *The Making of the Sermon*: Valley Forge : Judson Press, 1941.
- Perry, Lloyd M. *Biblical Preaching for Today's World*. Chicago : Moody Press, 1973.
- Perry, Lloyd and John R. Strubhan. *Evangelistic Preaching*. Chicago : Moody Press, 1979.
- Sangster, W.E. *The Craft of Sermon Construc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1.
- Skinner, Craig.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Pulpit*.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3.
- Stevenson, Dwight E. *Reaching People from the Pulpit*. New York :Harper & Row, 1958.
- Stott, John R.W. *Between Two Worlds*. Grand Rapids, Michigan: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 Sweazey, George E. *Preaching the Good New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76.
- Unger, Merrill F.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5.
- 김성호. “한국교회 설교는 건전한가?” 「월간목회」. 1981. 1.
- 李晶熙. “說敎의 構成에 대한 研究”, 「浸神論集」第六輯. 1983.
- 鄭長福. “설교의 재발견”, 「基督教思想」. 1981. 2.
- _____. “균형잡힌 설교를 위하여”, 「基督教思想」. 1981. 5.
- _____. “설교의 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基督教思想」. 1981.10.
- _____. “言語와 言語表現의 메커니즘”, 「基督教思想」. 1981. 11.
- _____. “說敎의 最終的인 必須要件二題”, 「基督教思想」. 1981. 12.
- 이 논문은 1983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